

귀한 동역자님께,

라오스 선교 Laos Mission ²⁰¹⁸

Go | Touch | Changed

10월 7일 주일 아침에 교회에 모여 파송예배를 드림으로 라오스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프놈펜을 출발하여 라오스 국경에 가까운 북쪽 도시인 스 텡 프라엥 ^{Strung Treng} 으로 향했습니다. 스 텡 프라엥은 위로는 라오스, 우로는 베트남, 좌로는 태국으로 이어지는 관문도시와도 같습니다. 특히 저희의 목적지인 라오스 팍세와의 캄보디아 상권교류가 육로로 연결되는 곳이고, 오랜시간 이주자들과 지역 특성상 크메르어와 더불어 라오스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YWAM 선교사를 만나 교제하며, 사무실을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쥘리 ^{Joy} 선교사는 영국선교사로 26년째 스 텡 프라엥 한 지역에서 YWAM 을 개척하고 그동안 많은 이들을 제자삼고, 또 그들을 통해 여러 마을에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돌보고 있었으며 동역자인 미셸 ^{Michele} 선교사는 스위스 선교사로 15년째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스텝 프라엥을 떠나며 저희는 삐짜이 형제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아홉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셋을 가난과 병으로 일찍 보냈고, 여섯 자녀를 훌륭히 키우셨습니다. 73 세인 연세에도 건강하셔서 매일 손수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집 안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담소를 나눈 후, 자고 있던 자녀와 손녀들을 깨워 예수안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할 것과, 그 축복이 가정과 사업터로 흘러가기를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후 버스는 한 시간 남짓 70km 정도를 북쪽으로 달려 국경에 다다랐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여권만있으면 육로로 연결된 태국, 베트남, 라오스로부터 싱가포르,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아세안^{ASEAN} 10 개국을 비자없이 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국가들을 보면, 캄보디아와 태국의 문화가 비슷하고, 라오스와 태국은 언어가 서로 소통되는 수준이며, 라오스와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가 같은 등의 서로 얹혀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중 현재 캄보디아의 복음전도가 가장 활발하고 자유로운 것은, 이후의 캄보디아인을 통한 동남아시아 선교의 가능성을 보게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작년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며 마지막 순간에 가족의 반대로 함께 하지 못했던 스러이뷔 자매가 이번에 걸어서 국경을 넘었고, 그것이 그의 생애 캄보디아 밖의 땅을 밟은 첫 걸음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두번째 스러이뷔 자매)



라오스로 들어와 저희는 북쪽으로 다시 150km 정도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메콩강을 건너 서쪽에 위치한 참파삭 Champasak 주의 왓푸로 향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기 위해 저희는 차를 실어 나르는 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누구도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낡은 배가 천천히 저희를 향해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좋은 심이 되었습니다. 차를 실어나르는 배는 3 개의 작은 보트를 연결하고 그 위에 나무 갑판을 얹혀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왓푸에 도착했습니다.

왓푸 ^{Vat Phou} 는 ‘산 위의 사원’이란 뜻으로 캄보디아 크메르 앙코르 왕조 이전에 지어진 힌두 사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적지입니다. 캄보디아 팀원들이 라오스땅에서 자신들의 조상이 남긴 유산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아직 주변국에 비해 약하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라오스의 일인당 GDP는 캄보디아의 1.5배, 베트남은 약 두 배, 그리고 태국은 다섯배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앙코르제국을 이뤘던 캄보디아 사람들의 자부심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캄보디아에 복음의 좋은 시절을 허락하심이 이 민족을 준비하사, 때가 되면 그들의 선조들이 닦아 놓았던 라오스나 태국, 베트남으로의 길로 보내사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생각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마음을 품고 왓푸의 가장 높은 곳의 큰 바위에 앉아 요한복음 4장 21절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메콩강변을 따라 북쪽으로 40여 km 가량을 올라가 이번 선교여행의 주목적지 팍세 ^{Pakse}에 도착했습니다. 잘 닦인 중앙의 큰 도로를 중심으로 시장과 학교, 관공서, 사원, 병원, 상점과 숙박시설 등이 잘 정비돼 있었으며, 외국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는 숙소로 도착해 짐을 풀고, 예배를 드림으로 팍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3박 4일의 일정에 팍세에서 2박 3일을 머물렀습니다. 이번 라오스 선교를 준비하며 한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은 텐텐 ¹⁰⁻¹⁰ 전략이었습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열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한 명의 팀원이 열 명의 라오스 사람을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체가 12명이니 힘을 합쳐 100명을 접촉한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주의국가인 라오스는 전도가 어렵고, 또 저희들의 라오스어는 생존언어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전에 계획했던 장소들을 하나씩 방문하며 다니며 각자 말을 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열 번의 예배 시간을 통해 자신들이 만났던 이들을 나누고 그들과 팍세, 라오스를 위해 함께 기도해 갔습니다.

시장 전도를 나갔을 때, 먼저 그곳에서 라오스 심카드를 구입하여 운전기사와 연락책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시장안 상점과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도중에 두 명의 팀원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누구든 대형에서 떨어지게 되면 버스에서 내린 지점으로 와서 기다리기로 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는 심카드가 없어 연락이 불가했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한 지점에 모여 기다리며 다른 두 명의 형제를 10 분 간격으로 찾도록 보냈습니다. 이후, 자매들이 중앙에 남고, 형제들이 세 개조로 나뉘어져 찾았습니다. 그렇게 30 여분만에 두 형제를 찾았습니다. 짧은 시간 마음을 졸였기에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10 명 중에 3 명을 만나고 왔으며 순진한 얼굴로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였습니다.

팍세에 3 개의 대학 중 저희는 두 군데를 방문하였고, 한 대학은 출입을 거부당했고, 후아치아오 기술대학 Huaqiao Champasak Technology College 에서는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도착하여 저희 팀원 중에 현재 프놈펜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 명의 형제(찌보완-위첻-모니레악)가 이 대학의 총장을 만나 저희를 소개하고 학교 출입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강의실, 기숙사, 매점 등에서 일대일 접촉을 가졌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있었지만, 서로가 가진 공통분모들로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저희가 크리스찬이란 것을 밝히고 그들의 이름과 전공을 묻으며 영혼을 품어나갔습니다. 전체 선교여행을 통해 극히 소수의 몇명만이 믿는 이였습니다. 더불어 주일학교 교사인 다엔과 스러이뷔 자매는 아이들을 찾아가 함께 얘기하고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아마도 그들 눈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영혼을 품는 이와 품어지는 이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팍세에 몇 불교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저희가 이르렀습니다. 캄보디아 동네마다 있는 사원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12 명의 팀원은 5 미터씩 떨어져 사원 벽을 돌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따라 가며 작지만 캄보디아 말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벽을 향해 손을 들고 걷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20 분 정도의 짧은 발걸음은 분명 새로운 피와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또 팀원 모두에게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왼쪽: 교복 치마를 입은 세 명의 라오스대학생들)

또 한 군데 저희가 방문하고 함께 예배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 Laos Evangelical Church: LEC였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세계기도정보 Operation World 2010년 책자의 라오스의 기독교 현황과 기도 정보를 팀원들과 공유했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에 대한 기도제목과 더불어,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감사히 그 교회 연합에 속한 교회가 팍세에도 있었고, 저희는 이번 선교 여정의 마지막 일정으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형제 자매를 만났습니다. 라오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과, 또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본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번에 12명의 단기팀원 중 모니레악 형제가 태국어 را 어느정도 구사하는데, 태국어와 라오스어가 서로 어느정도 소통되는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 답게, 그 자리에서 서로 페이스북 친구를 맺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이 교회의 한 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년이 되었는데, 형편상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부할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말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이 자매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선교비에서 간단한 한 끼 식사 정도의 재정을 떼어 교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등지고 있는 자매)

선교여행 떠나기 전날 밤 저희는 아홉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날은 하루 종일 걷고 사람을 만났던 날이었으며 동시에 육체적인 피로도 최고조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번째 예배에서의 찬양과 나눔, 기도가 가장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라오스 선교를 준비하며 가졌던 3가지 키워드는 ‘Go. Touch. Changed’ 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 Unknown Path 을 함께 가고, 알지 못하나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며, 그들과 함께 우리 또한 변화받자는 의미였습니다. 이 아홉번째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지평을 넓히셨음을 서로가 알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팀원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 중 한 형제를 소개합니다. 원래의 캄보디아 이름과 영어이름 요한 John 을 합쳐 찐잔 San John 이라고 부르는 형제입니다. 캄보디아왕립대학 컴퓨터학과 2학년 학생으로

필리핀 선교사 학사에 거주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다엔 자매의 소개로 지난 8월부터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라오스 선교를 듣고 마음에 소원을 품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팀원 각자에게 130 불의 회비가 책정되었는데, 상황이 어려운 경우 팀장인 찌보완 형제를 통해 교회의 보조금을 50 불까지 신청하도록 했었습니다. 지난 8 월 신청을 마감하고, 모두 최선을 대해 재정을 모았습니다. 단기선교 티셔츠도 제작하여 50 불을 판매하여 수익을 선교재정에 넣고, 한국에 유학중인 청년도 귀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부분은 팀원 각자가 걷는 130 불이었습니다. 모두가 100 불 이상을 마련했지만, 찐잔 형제는 마지막까지 20 불이 가능했었습니다. 팀장인 찌보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도후 그는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낼 수 있는 지체가 있으면 그리하고, 또 함께 절약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족액을 채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선교 준비팀과 모든 팀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꼭 필요한 것이었기에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렇게 떠난 찐잔 형제가 이번 선교여행에서 열 번의 예배의 찬양 인도를 자원했고, 매 번 찬양곡을 선곡하고 기타를 연주하며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해주었습니다. 한 지체의 어려움을 기꺼이 같이 분담했던 팀원들도, 또 그들과 함께 라오스 땅에서 귀한 예배를 감당해 주었던 찐잔 형제도 모두 얼마나 감사하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라오스 청년과 손잡은 찐잔(좌))



팍세에서의 마지막 밤 예배 후 저희는 형 형제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을 함께 갔고, 올해는 라오스에서 축하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또 어디가 될지 모르겠다고 즐겁게 나눴습니다. 초코파이 케익에 콜라, 그리고 선물은 엄지척 그림이 있는 간장 한 병이었습니다. 참으로 소박하고 유치한 모양이었으나, 하나도 부족한 것 없는 최고의 축하였습니다.

10 일 수요일 아침 일찍 팍세를 출발했습니다. 프놈펜까지는 차를 타는 시간만 12 시간 정도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처음 거점 도시였던 스 텡 프라 엔에 도착해 간단히 아침을 먹었고 잠시 운전기사 렌^{Len} 형제의 집에 들렀습니다. 딸과 조카들의 마중을 받는 렌 형제의 모습을 보며, 이 형제를 이번 선교여행의 마지막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렌 형제가 저희가 이번에 만났던 죠이 선교사로부터 20 년 전에 YWAM 제자훈련을 두 달간 받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결혼 후 아내와 헤어지고, 어린 두 딸을 키우며 불규칙적인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지난 10 년간 신앙 생활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열 세 살인 둘째 딸이 집 근처의 교회에 혼자 나가며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고, 이 아이가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끈이구나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3박 4일 내내 이 형제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온화한 성품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 남을 배려하는 말투 등이 보통의 운전기사와 같지



않다 여겼었습니다. 또 라오스어를 자유로이 구사하고, 스텝프라엔에 거주하며 주로 라오스 팍세로 운전을 오가고 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다시 신앙을 회복한다면 지금의 일을 통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복음을 나르고 전하는 데 여러 모양으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품고 기도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차안에서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프놈펜에 도착했을때, 렌 형제를 교회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모든 팀원이 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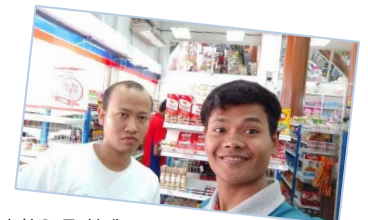
얹고 그의 신앙회복과 복음을 실어나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는 그의 대답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끌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른쪽 흰색 상의 렌 형제)

라오스선교를 준비하며 제 안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다른 이와 함께 가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과 백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주신 교회와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18년 10월 13일

정지웅 선교사 올림



시장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롯 형제 (오)